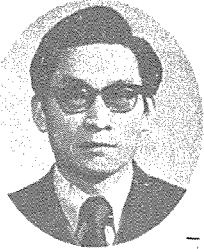


'82 學術會議에 부쳐



趙 完 圭

(科總副會長, 學術委員長)

금년의 學術會議는 그 形式을 바꾼 첫번째 행사가 된다. 종전같은 올해는 美州地域의 同胞學者들의 차례가 되며, 이들이 7월달 母國訪問하는 계제에 國內學者들과 합쳐서 제 9次 綜合學術大會를 가져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거처온 學術大會의 경험을 토대로 하였을 때 이와 같은 행사가 보다 더 內實있고 國家發展에 기여할수 있는 方法으로의 轉換이 필요해졌다. 從前의 綜合學術大會가 우리나라 學術發展에 기여한 것이 분명하지만 祝祭的行事로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서 아쉬운 감을 금할 수가 없었다. 美州와 歐州地域에 居住하는 科學·技術人들만이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綜合學術大會에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타지역의 同胞學者들의 참여기회가 제약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地域의 구분은 바람직하지가 않았다. 또한 그동안 在外科學技術人들에게 旅費나 滞在費를 보조해주지 않음으로써 一部 著名 科學技術人의 母國訪問行事에 積極的으로 참여를 誘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한편 在外科學技術人들의 母國訪問의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새로 마련한 방안의 첫번째시도가 올해에 施行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방안이란, 첫째로 從來와 같은 美, 歐州지역별 교대초치의 方法을 滋養하고 汎世界的인 大會로 발전시키며, 둘째로 종전과 같은 母國訪問行事와 같은 形式의 大會는 매 3년마다 한번 갖기로 하고 中間의 2년은 매해 봄, 여름, 가을로 나누어 行事를 갖되 봄과 가을에는 워크숍을, 여름에는 심포지움을 갖기로 하였다. 주로 産業과 關連된 분야 가운데 필요로 하는 3~4개 분야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고 여름의 심포지움은 주로 5~6개의 基礎分野를 택하여 갖기로 하였다. 워크숍과 심포지움에는 각 분야마다 제한된 수의 學者를 指名招請하고 그분들에게는 응분의 여비와 체제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行事의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필요한 科學·技術人을 초청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더 深層적인 學術大會가 됨으로써 그 質도 括目하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招請者의 소요경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해당분야의 權威科學者

를 적시에 참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워크숍은 閉鎖的인 행사이긴 하지만 先進技術을 직접 傳達하고 傳受하는 행사이므로 技術革新을 위해서는 극히 적절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形式을 통하여 技術의 落後性을 극복하고 産業發展을 迅速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매 3년 마다 갖게 될 母國訪問形式의 學術大會(84년에 제 9 차 綜合學術大會가 開催될 予定)는 汎世界的인 것이기 때문에 각처에 흩어져 있는 學者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창한 學術綜合大會가 될 것이고, 國內外科學者들이 같이 祝祭的行事와 곁들여 유대를 두텁게 하고 나아가 科學者誘致, 共同研究 등 祖國의 科學技術界의 발전에 기여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 意義 또한 클 것이다.

올해는 위와같은 연유로 인하여 달라지게 된 새로운 방법에 따라 이미 봄에 두 분야의 워크숍을 마쳤고, 高麗大學校에서 열릴 여름의 심포지움 행사준비도 거의 끝났다. 금년에 봄, 가을의 워크숍이나 여름의 심포지움은 課題들을 政府가 지난번 지정한 國家政策育成課題중에서 택하였다. 봄의 워크숍主題는 「半導體」와 「精密化學」이었고 前者는 龜尾의 「韓國電子技術研究所」에서, 後者는 大德研究團地의 「韓國化學研究所」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종류의 행사가 처음 試圖되는 것이었으나 각 産業體研究所나 關聯研究機關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所得이 적지 않았으며 앞으로 특성분야에 대한 워크숍을 자주 갖게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우리의 뒤떨어진 技術(Know-how)을 우리 同胞學者들로부터 일일이 指導받는 것이 큰 보람이었고, 또 그들 學者들의 소요경비를 부담함으로써 主催側도 몇몇하였으리라 믿는다.

에당초 여름의 심포지움도 각 분야마다 2~3명의 同胞學者를 초청하여 國內學者와 합동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사정에 의하여 이번

만은 종래의 母國訪問形式의 행사도 아울러 갖기로 정하였다. 半導體를 主議題로 하는 應用物理學, 遺傳工學을 主題로 하는 生物工學分野 등 5개 분야에서 정해진 主題아래 심포지움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母國을 방문하는 科學技術人과 國內學者의 일반 課題에 대한 발표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결국 심포지움을 위하여 12~3명을 指名招請하기로 했던 것이 다수의 一般課題 發表者도 참가하기 때문에 招請學者에 대한 補助는 대폭 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점 심포지움에 招請받은 科學者들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게 되었다. 少數 精銳를 바랬던 것이 다수 참여의 형식이 되었으나 發表論文의 質向上을 위하여 在外主管側(在美科技協)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높게 評價하고 싶다.

본래 學術大會의 目標가 國內外科學技術人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知識을 交流함으로써 學問과 國家産業發展에 기여하게 하고 또한 서로가 우의를 돈독히 하며 피차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祖國의 近代化事業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先進國들이 앞다투어 技術保護에 역점을 두고 있음으로써 先端技術을 들여오기가 어려워진 이 時点에서 在外優秀科學技術人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결코 작지 않다. 이미 앞으로 育成하여야 할 國家政策分野가 정해져 있으며, 이 분야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育成은 장래 우리의 생존과 결부된다고 판단할 때 오늘처럼 우리 科學技術人에게는 國家의 興望은 결코 적다 할 수 없으며 더우기 先進國에서 익히고 닦은 在外科學技術人들의 넓고 깊은 學識은 이에 절대로 기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금년의 學術大會를 준비하면서 이 大會가 우리가 소원하는 第2의 跳躍을 위한 밑받침이 되길 바라고 또 기원하면서 所感을 밝혀두고자 한다.